

## 인식적 외재주의와 ‘합리성’의 문제

홍 병 선

**주제분류** 영미철학, 인식론

**주요어** 합리성, 내재주의, 외재주의, 인식정당화, 인과적 오류

**요약문**

이 논문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인식적 내재주의·외재주의 논쟁을 둘러싼 공방에서 ‘합리성(rationality)’을 활용하여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지금까지 내·외재주의를 둘러싼 대부분의 공방이 상대를 무력화시키면서 그 반사 이익으로 스스로를 옹호하려는 방식을 취해 왔다. 하지만 새롭게 요구되는 비판의 성격은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함께 독립적으로 옹호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합리성’에 대한 답변 방식을 통해 외재주의적 전략이 갖는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내재주의에서는 얼마든지 그 답변이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이론상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전략적 기반은 외재주의적 견해가 갖는 본성적 측면으로 인해 ‘합리성’에 대해 그 설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론상의 결함을 지적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여기에는 외재주의에서 표방하는 한 믿음의 정당화 조건(즉, 신빙성 있는 믿음의 조건)을 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 1.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인식적 내재주의·외재주의 논쟁을 둘러싼 공방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수많은 대안이 제시되어 왔지만, 그 해결책의 일환으로 ‘합리성(rationality)’이 활용된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sup>1)</sup> 이 글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즉, ‘합리성’을 통한 방식만이 인식 외재주의적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내재주의가 옹호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일 수 있다는 전제이다. 그렇다면 인식적 내재주의·외재주의 논쟁과 관련하여 그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가운데 하나는 ‘합리성’과 연관된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같은 인식 외재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재주의의 전략적 기반은 외재주의적 견해가 갖는 이론적 성격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인식 외재주의가 갖는 태생적 측면으로 인해 결코 벗을 수 없는 이론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하자면 외재주의에서 표방하는 한 믿음의 정당화 조건(즉, 신빙성 있는 믿음의 조건)을 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인식 외재주의의 전형적인 모델은 한 믿음-형성 과정이 인과적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믿음-형성 과정에 대한 인과론적 개입이라는 외재주의적 조건을 전적으로 만족

---

1) 인식 외재주의에 대한 반론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코헨(Cohen)과 기넷(Ginet)의 ‘사악한 악마의 문제’, 봉주르(Bonjour)의 ‘투시력 문제’, 치즘(Chisholm), 펠드만(Feldman)의 ‘일반성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반론들이 모두 내재주의를 옹호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외재주의에 대한 공격 그 자체에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 자체가 비록 성공적이라고 할지라도 내재주의를 옹호하는 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이다. Cohen(1984), Ginet(1985), Chisholm(1982), Feldman(1985), Feldman(1988), Goldman(1979) 참조. ‘합리성 문제’와 관련하여 외재주의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동시에 내재주의를 옹호하는 논변으로는 폴리(R. Foley)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Foley(1991) 참조.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 ‘참의 극대화와 거짓의 극소화’라는 인식론적 목표를 반영해 내지 못하는 정당화론되고 말 것이다.<sup>2)</sup> 이 문제는 외재주의가 갖는 가장 큰 취약점이자 그 성립 가능성조차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합리성의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합리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물음은 한 믿음이 정당화된다고 했을 때, 정당화 조건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으며, 과연 외재주의에서 내세우는 조건에 따라 그 정당화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sup>3)</sup> 간단히 말해 이 물음은 외재주의적인 인식정당화의 개념도 과연 합리성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대표적인 인식적 외재주의 가운데 하나인 골드만(Alvin I. Goldman)의 견해에 따르면, 인지자 S의 믿음이 골드만이 제시하고 있는 신빙성의 조건을 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그 믿음을 참이라고 여길만한 합리적인 이유 혹은 합당한 근거를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논점을 반영한다. 이는 곧 인지자 S가 그 믿음을 받아들임에 있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sup>4)</sup> 물론 외재주의 틀 내에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추가적인 조건을 덧붙이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자칫 외재주의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낳기 십상이다. 이에 반해 내재주의에서는 한 믿음이 참이라고 여길만한 합당

2) 인식론의 목표와 관련하여 ‘참의 극대화와 거짓의 극소화’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우리의 믿음이 세계상을 그대로 비추어 주는 투명한 거울의 구실을 할 수는 없다는, 즉 ‘믿음의 오류가능성’에서 비롯된다.

3) 많은 내재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외재주의에 대한 전형적인 반론은 봉쥬르와 폴리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Bonjour(1985), Foley(1985) 참조.

4) 이에 관해서는 몇몇 반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요점은 나의 감각-지각에 의해 주어진 경험에 따른 믿음이 참이라고 여길만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은, 특정한 사태로부터 야기된 나의 감각경험이 나의 유일한 인식적 근거라는 점에서 설사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경험이 주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Cohen(1984), 281쪽. 퍼트남의 주장 역시 이와 유사한 논점에 따른 것이다. Putnam(1983), 246쪽 참조.

한 이유를 인지자가 소유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얼마든지 그 답변이 가능하다.

인식 내재주의에 의하면 한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인식 주관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인식적 합리성의 확보가능성과 관련하여 내재론의 경우 인식 주관의 관점에 따른다는 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외재론의 경우 인식 주관의 관점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합리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외재주의에 가해지는 이러한 비판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재주의자들은 우선 인식 정당화에 필수적인 ‘인식 주관의 합리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물을 것이다.

## 2. 합리성 문제에 대한 외재주의의 대응

인식적 외재주의에 가해지는 가장 중요한 반론 가운데 하나는 신빙성 있는 믿음의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외재주의가 갖는 가장 큰 취약점이자 그 성립 가능성조차 의심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합리성(rationality)’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합리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물음은 한 믿음이 정당화된다고 했을 때, 어떠한 형태의 정당화의 조건을 고려한 것이며, 과연 외재주의에서 내세우는 조건에 따라 그 정당화가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sup>5)</sup> 다시 말해 이 물음은 외재주의에서 제시하는 인식정당화 개념이 과연 합리성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홍병선(2001)에서 나는 영수의 믿음이 골드만이 제시하고 있는 신빙성의 조건을 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되지 못하는

5) 많은 내재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특히 여기에서 염두에 둔 것은 봉쥬르와 폴리의 견해이다. Bonjour(1985), Foley(1985) 참조.

이유는 그가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 혹은 합당한 근거를 영수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6)</sup> 이러한 지적은 영수가 그 믿음을 받아들임에 있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재주의에서 제시하는 ‘한 믿음의 정당화를 위한 인과적 조건’이라는 틀 내에서 그 해결책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이를 벗어나기 위해 추가적인 조건을 덧붙이는 전략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칫 외재주의적 기초를 흔들 어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합당한 이유에 대한 인지자의 소유’라는 조건을 요구하는 내재주의 관점에서는 별 어려움 없이 그 답변이 가능하다.

내재주의에 의하면 한 믿음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인식 주관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인식적 합리성이 확보 가능하다는 것은 내재주의의 경우 인식 주관의 관점에 따르는 반면, 외재주의에서는 한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합리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외재주의에 가해지는 이러한 비판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재주의자들은 우선 인식 정당화에 필수적인 ‘인식 주관의 합리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해 물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개념을 해명하기 위해 다음의 예를 통해 인식적 합리성의 조건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자.

【예 1】 “영희는 졸업 시험에 통과될 경우 바로 졸업하게 되어 있으며 그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희는 자신이 시험에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증거도 갖고 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 왔고, 그 시험에 관련된 거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게다가 시험에 관한 모든 정보 또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통과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졸업하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좀더 복잡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심사위원들은 영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그녀가 졸업하게 될

6) 홍병선(2001) 참조.

것이라는 것을 그녀 자신이 믿게 될 경우, 시험을 보다 어렵게 변경 시킴으로써 영희가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할 것이다. 게다가 영희는 이 모든 사실을 ‘신빙성 있는 방식을 통해 알고 있다’. 이 경우 영희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영희는 “졸업 시험에 통과하게 될 것이다”(P)라는 명제와 “시험은 변경될 것이고, 결국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Q)라는 명제 가운데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7)

위의 예에서 영희의 증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전제에 따라 영희가 졸업하게 될 것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전적으로 타당하며, 영희 자신도 이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다. 여기에서 영희가 P가 참이라고 믿을만한 근거는 있지만 정작 그 명제를 믿어야 하는 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영희가 졸업하게 될 것이라는 명제 P를 그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그러한 그녀의 믿음은 심사 위원으로 하여금 시험을 변경하도록 만들 것이며, 따라서 그녀는 졸업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신빙성 있는 그녀의 또 다른 믿음인 Q에 입각할 때, 믿음 P가 소멸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물음은, 영희의 목적이 인식적인 한에 있어서, 영희가 졸업하게 될 것이라는 명제에 대해 어떤 인식적 태도를 지니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점이다. 영희가 그 명제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혹은 유보하는 것 가운데 어떠한 것이 합리적인가?8)

7) 폴리가 Foley(1991)에서 제시한 예를 다소 수정한 것이다. Foley(1991), 참조.

8) 이는 1980년 중반 이후로 버지(Burge), 코니(Conee), 크룬(Kroon), 소렌슨(Sorensen), 굽타(Gupta), 이병덕 등에 의해 활기차게 전개되어 온 “믿음의 불안정설 역설(The paradox of belief instability)”로 알려진 논의이다. 이병덕 교수의 논의를 통해 정리하면, “S가 인식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하고, (1) P ↔ it is not the case that S believes ‘P’ 여기에서 (1)은 쌍조건문 (1)의 양 항들이 동시에 참일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일관적이다. 그리고 S는 (1)을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질 수 있다. 우선 ‘P’를 ‘S가 ‘P’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장으로 정의하면, (1)은 정의에 의해 참이다. 어떠한 경우건 (1)은 명백히 참이며, 우리는 이 참인 쌍조건문을 믿는 존재가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제 (1)이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S가 인식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로서 ‘P’를 믿어

【예 1】에 관해 내재주의적 틀 내에서 이해할 경우, 우선 영희의 결론에 대한 믿음은 영희의 인식적 책임(epistemic responsibility)을 통해 확보된 믿음이기 때문에 인식적으로 정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9)</sup> 영희는 가능한 상황들을 인식적 관점에 따라 파악하고, 그의 인식적 목표에 비추어 결과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그는 인식적 의무를 저버리지 않은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 믿음이 인식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인식 주체가 그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적 책임을 다한 결과에 따른 믿음은 마땅히 정당화될 것이고, 따라서 인식적 합리성의 조건을 만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재주의적 틀 내에서 인식 정당화를 위해 요구되는 합리성의 조건인 ‘인식적 책임 조건’은 【예 1】에서 영희의 경우에도 역시 충족될 수 있다.<sup>10)</sup> 이에 반해서 외재주의적 견해에 따를 경우, 어떠한 답변이 가능하겠는가?

---

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려 한다고 하자. 이 경우 S는 단지 세가지 선택지들을 갖는다. S는 ‘P가 참이라고 믿을 수 있고, 또한 ‘P가 거짓이라고 믿을 수도 있고, 또한 ‘P에 대해 판단유보를 할 수도 있다. 만일 S가 ‘P를 참이라고 믿으면 상조건문 (1)에 의해 ‘P는 거짓이 된다. 그리고 S가 그 믿음을 택하자마자 거짓이 되는 문장을 믿는 것은 인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한편 S가 ‘P를 거짓이라고 믿으면, S는 (1)에 의해 그가 ‘P를 믿는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S는 인식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로서 그가 거짓이라고 믿는 문장을 그가 믿는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P를 참이라고 믿는 것도 거짓이라고 믿는 것도 인식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결국 ‘P에 대해 판단유보를 하는 것이 유일한 합리적 선택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인식적 곤경에 처하기는 마찬가지이다.”로 요약할 수 있다. 이병덕(1998), 364-74 참조.

- 9) 인식 내재주의에 대한 의무론적 개입(인식적 책임)의 근거에 관해서는 홍병선(2002)의 4장과 5장을 참조하기 바람.
- 10) Bonjour(1985), 48-9쪽. 이 점에 대해 치즘(Chisholm)은 우리가 어떤 명제를 받아들일지에 있어 그것이 참인 경우 또 오직 그 경우에 한해 자신이 그 명제를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도록 해야 하는 지적 책임을 지닌다고 보고, 그것은 바로 지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저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시점에서 인식 주체에 대해 q에 비해 p가 더 합리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시점에서 지적인 존재로서의 그의 책임이 p보다는 p에 의해 더 잘 달성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hisholm(1977), 14쪽.

외재론의 대표적인 견해인 신빙주의에 따르면 신빙성 있는 믿음-형성 과정에 따라 산출된 믿음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며 반대로 그와 같은 과정에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산출된 믿음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물론 여기에서의 정당화는 인식 주체의 내적 접근과는 무관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sup>11)</sup> 그런데 【예 1】에서 영희의 믿음은 신빙성 있는 과정에 따라 산출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외재주의에서 영희의 믿음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할 경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영희의 믿음이 신빙성이 없는 과정을 통해 산출되었다는 것인가 혹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영희의 믿음이 사실과의 인과적 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인가?

골드만의 경우 한 믿음의 정당화가 신빙성 있는 믿음-산출 과정에 따르는 것이라고 할 때, 그러한 과정에 방해가 되는 요인이 있다면 그 신빙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정당화된 믿음의 산출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지자가 신빙성 있는 믿음-산출 과정에 따라 얻어지는 믿음과 충돌하는 어떤 믿음도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럴 경우에 한해 정당화된 믿음의 확보는 가능할 것이고, 비합리성의 비판이 가능하다는 그의 인식적 이상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의 이상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sup>12)</sup> 【예 1】에서 그의 방식에 따라 영희의 믿음에 대한 신빙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Q를 적절히 처리해야 하는데 골드만이 내세우는 개념적 장치를 통해서 Q를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했는지 Goldman(1988)에서 골드만은 이에 대한 답변을 시도하고 있는

11) Goldman(1992), 참조.

12) 여기에서 ‘이상’이라고 한 것은 다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즉, 내재주의나 외재주의나 비합리성이 비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견해를 달리하지 않는다. 두 입장 모두 비합리성을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인식적 용어에 대한 의무론적 분석에 따라 ‘가치적 용어’를 사용하여 ‘인식적 개념’을 정의하는 것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식적 용어에 대한 의무론적 분석이 적어도 내재주의에는 적용되지 몰라도 외재주의의 형태를 띤 견해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홍병선(2004), 3절 참조.

데, 그는 우선 정당화를 강한 정당화(strong justification)와 약한 정당화(weak justification)로 구분한 다음 전자의 조건을 ‘방해적 요소의 부재 조건(no undermining factor)’, 후자의 조건을 ‘비난의 부재(blameless)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방해적 요소가 없어야 된다’는 조건은 인식 주체가 문제의 믿음과 비일관적인 믿음들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한 믿음을 신빙성 있는 믿음 형성 과정에 따른 정당화라고 했을 때, 이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출된 믿음을 인식 주체가 지녀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골드만의 제안은 당장 【예 1】을 설명하지 못한다. 영희의 믿음에 방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당화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후자의 조건은 그의 말대로 약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이 또한 사정이 더 나올 것도 없다. 약하게 정당화된 믿음이란, 불분명한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강한 의미와 구분해서 ‘비난의 부재’와 같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약하게 정당화되기 위해서라도 문제의 믿음이 신빙성이 없는 믿음 형성 과정에 의해 산출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예 1】에서 영희의 믿음은 신빙성 있는 믿음 형성 과정을 통해 산출되었다. 그렇다면 약하게 정당화된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골드만의 제안은 인식 내재주의적 책임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3)</sup>

골드만도 위와 같은 반론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그러한 반론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가 근간으로 삼고 있는 외재주의의 기초를 결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예 1】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가 자신에게 유리한 이론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외재주의의 기본적인 전략을 유지하는 한, 위의 예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그 시선을 달리 돌림으로써 그 차선

13) Goldman(1988), 128-33쪽.

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 차선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는 외재주의적 틀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내재주의적 개념의 도입을 통해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사례를 생각해 보자.

【예 2】 “철수는 어느 날 조각예술 전시회에 가게 되었다. 나름대로 조각 예술에 일가견이 있던 그는 전시된 조각을 유심히 감상하다가 어떤 조각에 눈이 가게 되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보기에 전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한 조각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고, 둘 중 하나는 진품이고 다른 하나는 모조품이라고 하자. 철수는 두 조각 가운데 진품을 가려내려 애를 썼지만 아무리 해도 두 조각 간의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철수는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그 중 하나를 진품으로 확신하게 된다. 그런데 영수가 진품이라고 지목한 조각이 실제로 진품이었다.”

이 예에서 철수가 지목한 조각이 진품이라는 그의 믿음은 참이며 또한 실제로 철수의 믿음을 참이게 하는 사실이 그의 믿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철수의 믿음은 인과론적 개입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골드만식의 정의에 따라 충분히 지식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한다. 그러나 【예 2】에서 철수는 자신이 지목한 조각이 진품임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철수가 진품임의 여부를 식별함에 있어 단지 그 사실에 의해 야기되어야 할 것에 대한 요구라기보다는, 내가 그 작품이 진품이라고 여길만한 합당한 이유를 소유해야 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sup>14)</sup>

여기에서 가능한 해결 방안은 영수가 그 믿음을 받아들일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영수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한, 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외재주의에서는 정당화 조건에 대한 접근의 요구는 여전히 상위 믿음을 요구하게 되어 회의론적 귀결로 빠지게 됨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도, 한 믿음에 대한 약한 접근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14) 홍병선(2001), 68-70쪽, Chisholm(1977)의 23쪽 참조.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이 부분적으로나마 내재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전적으로 외재주의의 본질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해결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 3. 인과적 오류와 합리성 문제

‘인식적 합리성’과 관련하여 외재주의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외재주의적 정당화와 관련하여 외재주의에 제기된 중요한 반론 가운데 하나로 레러에 의해 지적된 인과적 오류(causal fallacy)의 문제이다.<sup>15)</sup> 외재주의에서 한 믿음을 정당화된 믿음이 되도록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을 발생시킨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어떤 것을 믿는데 대한 이유(reason)와 그것을 믿는 원인(cause)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한 정당화가 증거에 기초해 있다고 했을 때, 그가 믿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증거 때문일 것이다. 외재주의에서 한 믿음의 정당화가 그 증거에 토대를 둔다는 것은 그 증거에 인과적으로 따른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증거와 인과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오직 그 경우에 한해 그 믿음에 대한 정당화가 그 증거에 기초한 것이 된다. 외재적 정당화가 기초하고 있는 증거가 실제로 그 믿음과의 인과적 관계에 의해 분석되고, 따라서 그 믿음이 증거에 의해 인과적으로 설명되는 방식을 통해 그 믿음은 정당화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당화된 믿음이 그 믿음을 정당화하는 증거와 인과적으로 무관할 경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게다가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한 정당화가 그 증거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 믿음을 갖는지를 그 증거가 전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믿음의 정당화를 위하여 한 믿음과 증거 사이에 아무런 인과 관계도

15) Lehrer(1990), 168-72쪽.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하면 외재주의적 전략을 좌초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외재주의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한 믿음을 갖는 데 대한 이유가 그 믿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믿음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는 것과는 별도로 또 다른 원인으로부터 그 믿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믿음을 발생시킨 원인과는 별도로 그 믿음을 정당화하는 이유들을 갖게 될 수 있다면, 그 이유들은 믿음에 인과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그 믿음을 정당화시키게 된다. 이 점을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sup>16)</sup>

“철호는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속한 인종의 성원은 그렇지 않은데 특정한 인종 A는 어떤 질병에 감염되기 쉽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자. 그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A 인종에 관한 믿음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계기를 통해 A 인종이 아닌 B라는 인종이 그러한 질병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굳게 믿게 되었는데, 그러한 편향된 믿음이 이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하자. 이제 철호가 의사가 되어 문제의 그 질병에 관해 과학적인 연구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는 그 질병에 관해 알려진 모든 것에 관해 연구한 결과 그의 확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철호가 입수한 과학적인 증거는 오직 B 인종에 속한 사람들만이 그 질병에 감염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철호는 과학적 증거의 기준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의학 전문가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편견이 좀처럼 약화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호는 어떠한 의학 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그 증거를 이해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 그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갖게 된다. 그는 자신의 확신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확증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한 발견에 따라 그는 결국 B 인종의 성원들만이 그 문제의 질병에 감염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16) 레러가 제시한 사례를 논지의 성격에 맞게 일부 변형시켰다. Lehrer(1990), 169-70쪽.

철호는 주어진 증거에서 B라는 인종만이 그 질병에 감염된다는 믿음에 이르는 타당한 논증을 하였으며, 이 논증에 의거하여 그 증거가 B라는 인종만이 그 질병에 감염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타당한 근거라는 것까지도 의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B라는 인종만이 그 질병에 감염된다는 믿음이 철호에게 정당화될 것이고 이를 부정할 길은 없다. 하지만, 그 믿음을 정당화시키는 증거만이 바로 그 믿음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혹은 본래의 원인이 되는 특정한 계기를 통한 B 인종에 대한 편견 내지는 확신이 그에게 없었더라면, 철호는 증거와 믿음 사이의 타당한 논증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증거가 철호로 하여금 그 믿음을 형성하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예가 보여주는 것은 철호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이유들은 결코 그 믿음을 인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증거와 믿음 사이의 인과 관계가 외재주의에서 말하는 정당화의 필요 조건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믿음이 그 증거로부터 산출되거나 인과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골드만 등의 외재주의자들의 즐기찬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스웨인(M. Swain)을 포함한 외재주의자들은 철호의 믿음에 대한 증거와 믿음 사이에 모종의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위의 반론에 응수할지 모른다.<sup>17)</sup> 즉, 이 예에서 철호의 믿음에 본래 원인이 되는 특정한 계기를 통한 그의 편견에 따른 확신이 없었더라면 철호는 증거로부터 특정한 인종에게만 그 질병에 걸린다는 논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이 일견 타당성을 갖는 것 같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철호의 경우 증거가 어떤 특정한 인종에게만 그 질병에 걸린다는 믿음의 반사실적(counterfactual) 원인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본래 원인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후에 증거가 위 믿음의 원인이 될 것인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철호는 증거에 의존하여 문제가 되는 인종만

17) Swain(1981), 91쪽, Lehrer(1990) 169쪽 참조.

이 그 질병에 감염된다는 믿음에 이르는 논증을 했다는 점은 고수해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증거가 위 논증 덕분에 철호로 하여금 문제가 되는 인종에게만 특정한 질병에 감염된다는 것을 믿게끔 인과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그 믿음이 증거에 의해 유지된다고 말하는 것은 철호가 자신이 믿는 것을 편견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증거의 인과적인 결과로 계속 믿었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답변은 위의 반론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주장은 철호에게 작용하고 있는 편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철호는 특정한 인종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B 인종이 문제의 질병에 감염된다고 믿은 것이다. 더욱이 B 인종이 특정한 질병에 감염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철호의 논증은 아주 복잡하다. 따라서 특정한 인종이 그 질병에 감염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이 논증뿐이라면, 철호는 자신의 감정적인 편견에 휩싸여 그 인종이 특정한 질병에 감염된다고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논증의 타당성을 의심하였을 것이다. 철호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에 특정한 인종이 질병에 감염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다.

문제는 비록 다른 요인들이 그 믿음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증거가 그 믿음에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영향이 정당화되는 우연적인 관계만을 지닐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가 알고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특정한 결론을 타당하게 연역했다면, 그것은 그로 하여금 그 결론을 믿도록 하는 원인이 되거나 그 결론에 대한 그의 믿음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추리의 타당성은 인과적 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가 알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하여 어떤 결론을 정당화한다면, 그 일은 그로 하여금 그 결론을 믿도록 하는 원인이 되거나 그 결론에 대한 그의 믿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의 결론에 대한 정당화는 그러한 인과적 영향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 믿음과 증거와의 인과적 관계가 인식 정당화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았다. 또한 그러한 논의를 통해, 한 믿음의 정당화가 외재주의적 틀 내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지 못할 수 있음도 보았다. 물론 앞에서 제시한 것과 유사한 종류의 반례가 동일한 차원에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반례들로부터 우리는 인식 정당화를 위해 요구되는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데, 그것은 한 믿음과 증거와의 관계에서 인과적 영향만이 인식 정당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외재주의의 주장이 그리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증거에 따른 한 믿음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 증거에 대한 인식 주관의 내성적 파악이라는 내재주의적 해결 방식이 그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 4. 나오는 말

지금까지 외재주의의 본성적 차원에 대한 인식론적인 검토를 통해 드러난 것이 있다면, 인식론에 대한 철학적 문제가 지니는 연관성에 비추어 볼 때, 외재론에만 의존해서는 지식에 대한 올바른 해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합리성’에 비추어 우리가 안다는 것, 혹은 정당화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에 대한 외재론의 분석은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식 외재주의가 결코 단순하게 넘길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확보하고자 하는 지식이 어떤 종류의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인간은 부단히 합리적이고자 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어떤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사적 반응으로서의 믿음 이상의 어떤 것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간 합리성’에 대한 우리의 철학적 물음에 대해 외재주의에서의 답변이 결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

한 믿음의 인식적 합리성은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실천하는 자로서의

인간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여타의 생명체와 본질적으로 구분지어주는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의 합리성은 한 믿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적어도 외재주의에서 표방하는 인식정당화 개념이 인식의무라는 합리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정당성 확보란 인과적 관계에 따른 신빙성 조건을 전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인식적으로 정당화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또한 합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는 지식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합리적인 존재로서의 인지자가 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 혹은 합당한 근거를 인지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외재주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다. 적어도 한 믿음의 정당화가 인지자의 합리성에 따른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한 믿음-형성 과정에 따른 인식적 합리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앙대학교)

참고문헌

- 홍병선(2001), “현대 인식론에서 데카르트식의 토대론적 전략은 유효한가”, 『철학탐구』, 제13집.
- \_\_\_\_\_(2002), “인식의무, 그 자연화 전략상의 문제”, 『칸트연구』, 제10집.
- \_\_\_\_\_(2004), “인식적 내·외재론 논쟁과 규범성의 문제”, 『철학탐구』, 16집.
- 이병덕(1998), “인식론의 한 역설과 믿음의 수정이론”, 『제11회 한민족철학자대회보』, 364-74쪽.
- Armstrong, D. M.(1973), *Belief, truth and Knowledge*, Cambridge Univ. Press.
- Bonjour, L.(1985), *The Structure of Empirical Knowledge*, Cambridge : Harvard Univ. Press.
- Chisholm, R. M.(1977), *Theory of Knowledge*,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_\_\_\_\_(1982), *The Foundations of Knowing*, Minneapolis: Chiffs, N.J.: Prentice-Hall.
- \_\_\_\_\_(1989), *Theory of Knowledge*, 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ohen, S.(1984), “Justification and Truth”, *Philosophical Studies* 46.
- Conee, E.(1988), “The Basic Nature of Epistemic Justification”, *The Monist* 71, 3.
- Feldman, R.(1985), “Reliability and Justification”, *The Monist* 68.
- Foley, R.(1987), *The Theory of Epistemic Rationalit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_\_\_\_\_(1985), “What's Wrong with Reliabilism”, *The Monist* 68.
- \_\_\_\_\_(1991), “Evidence and reasons for belief”, *Analysis* 51.
- Fumerton, R.(1988), “The Internalism/Externalism Controversy”, *Philosophical Perspectives* 2, Epistemology.
- Ginet, Carl(1985), "Contra Reliabilism", *Monist* 68.

- Goldman Alvin I. (1979), "What is Justified Belief", in Paul K. Moser, ed.,  
*Empirical Knowledge*, Rowman & Littlefield.
- \_\_\_\_\_(1980), "The Internalist Conception of Justification,"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Vol. 5*.
- \_\_\_\_\_(1986), *Epistemology and Cognition*,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_\_\_\_\_(1992), "What is Justified Belief?", in Liasons, Cambridge: MIT Press.
- \_\_\_\_\_(1990), *Theory of Knowledge*, Boulder, Co : Westview Press.
- Pollock, J. L.(1987), "Epistemic Norms", *Synthese 71*.
- Putnam, H.(1983), "Why Reason Can't Be Naturalized?", in his *Realism and  
Reason: Philosophical Paper3*(Cambridge Univ. Press)
- Steup, M.(1996),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Epistemology*, Prentice-Hall.
- Swain, M.(1981), *Reasons and Knowledge*, Ithaca, New York: Cornell Univ.  
Press.

## Epistemic Externalism and Problem of 'Rationality'

Byung-Sun Hong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use 'rationality' and then find its solution in the debate of epistemic internalism and externalism. Until now, most of offensive and defensive battles around epistemic internalism and externalism had the method to debilitate its counterpart and defend itself with reflection-profit. But we need to know that the newly demanded character of criticism will perish the counterpart and support the method which takes defense independently. For this, the strategy to attain this aim is to show the limitation of epistemic externalism through the answering method to rationality and at the same time, secure the high position theoretically displaying the possibility of answer as much in internalism. It will be started in the strategy's base that the explanation about 'rationality' which indicates natural side of externalistic opinion, should perform restrictly in the defection of theory. Here in the thesis, it comes from the possibility that it is difficult to see that there are some cases to be justified epistemically in spite of satisfying wholly the justification condition of the belief (that is to say, the condition of credible belief) presenting in the externalism.

**Key Words:** rationality, internalism, externalism, epistemic justification, causal fallacy.

홍병선 e-mail : hbshong@cau.ac.kr